

날마다 보살행할 것 서원해야



후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조부에 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그것을 책으로 펴냈다. <운유재 문집>에는 흠뻑 읽고 싶은 아름다운 문장이 너무나 많다. 그중 한 구절을 여기에 소개한다.

화기승소계상고(花氣乘宵樹上高)
만산송취청간도(滿山松癡聽殘露)
꽃향기는 밤을 타고 섬돌 위에 오르고
은 산의 솔바람은 파도처럼 들려온다.

빗님은 수곳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광원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각국사 부도탑이 있는데,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참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빗물은 마당에 도랑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다. '우르릉 광광~' 하고 내리치는 천둥 번개소리에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도 말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 말은 거칠거나 화려하기만 할 뿐,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유마(維摩) 거사의 침묵이 더 요구되는 것 같다. 현봉 스님은 유마 거사의 침묵에 대해 조근 조근 짚어주었다.

부처님 당시, 바이살리에 유마 거사가 있었다. 재가자로서 그 수행은 제자들을 능가하는 훌륭한 분이였다. 부처님께서 유마 거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갔다 올 것을 일렀다. 부처님의 심대 제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보살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유마 거사는 그들에게 불이법(不二法)을 법문했다. 이분법(二分法)적인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에 대해 토론하며 하나하나 깨우쳐줬다. 부처님의 뛰어난 심대 제자들도 유마 거사의 법문 앞에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이 찾아 가서 불이법에 대해 서로 문답을 나눴다. 문수보살은 불이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마에게 '이제 거사님께서 불이법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 유마 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문수보살과 대중들은 '유마 거사가 불이법을 가장 훌륭하게 잘 설해줬다'고 찬탄했다.

스님은 "유마 거사의 침묵은 <천수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정구업진언의 극치"라고 했다. 유마 거사의 침묵은 자타(自他), 시비(是非), 선악(善惡) 등 상대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 청정한 그 자리인 것이다. 현봉 스님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시비하는 그 마음을 두고 "중생들의 본래 근원"이라 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같이 마음으로 돌아가니 만법은 바로 이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누어 보면 팔만 사천이요 넓히면 무궁무진하니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온갖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진 화상은 '수미산을 꺾어서 붓을 삼고 바닷물을 갈아서 먹을 만들어 이 마음(心) 한 글자를 표현해 써보려 할지라도 능히 다 쓸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미혹한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생들은 '나'라는 집착 때문에 끝없는 탐욕과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온갖 업을 짓게 되며 스스로 얽매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끝없는 번뇌망상의 실체를 깨달아 그 굴레를 벗어 나겠다는 것이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이란. 우리가 발심하는 까닭은 중생살이의 고통 때문이며, 그래서 구경(究竟)에는 중생의 고통을 건지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다.

현봉 스님은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무척이나 공사다망(公私多忙)했을 터인데 자가 용을 마련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지금도 자가용 없이 서울로 어디로 법문을 다닌다. 스님은 털실 한 켤레만 지구 어디라도 못 갈 데가 없는 것이다. 산중에서 농사지으면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현봉 스님께 요즘의 사회 현실에 대해 진단을 부탁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부처님께서 전통성왕이 되어 복지법으로 사람들을 구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유훈법으로는 생로병사를 그리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했기에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부(富)나 빈(貧)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지이며, 상대적인 것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팔풍(八風)은 끝없이 불어오고 중생계의 번뇌는 끝이 없어요. 사바세계란 고통을 참으면서 안으로 반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을 보면 내가 팔찌라,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세상에서 일등인 것이라.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에 보살행을 하겠다는 맹서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씀 참으로 귀하다. 부처님은 물질로서 얻은 행복은 영원하지 않음을 매순간마다 법문 해주고 계시는데 우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공의 본바탕에는 색(色)을 놓아두려 해도 공(空)은 색(色)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놓아두려 해도 공(空)은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6. 통도사 조실 경봉 큰스님

경봉 정석(鏡峰靖錫:1892~1982) 큰스님은 어찌 보면 부자 집 마나님처럼 생겼으면서도 대장부의 기상을 갖추었다. 평생시 말씀하실 때 자분자분하다가도 법상이나 강단에 올라 설법할 때는 경천지동(驚天地動)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시키려는 사자후가 나타난다. 1980년 한의과 대학생을 데리고 통도사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육바라밀탕' 법문을 하셔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보시 3돈·지계 2돈·인욕 3돈·정진 2돈·선정 3돈·지혜 2돈, 이 여섯 가지를 지어 먹으면 속지황·산약·산수유·백복령·목단피·택사가 만병회춘이 되듯이 중생의 신기허약(身氣虛弱) 오장육부가 건강해져

"나는 1925년부터 통도사 만일염불회를 30년동안 이끌어 오면서 극락세계가 서방에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왔다. 스님은 인연 없는 부인도 거느리고 살았고, 없던 자식도 주여 길렀다. 어떤 수좌가 비연(非緣)에 인연이 돼 아들 하나를 낳으니 승려자적이 박탈되게 됐다.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갑자기 대중공사 가운데서,

"그 애는 내 아이요. 내가 인연이 돼 낳았으니 통도사 주지직을 그만 두고 그 애를 내가 기르겠오."

하여 그 아이와 어머니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스님을 의국유학까지 보내 마침내 한국불교 회계위원으로까지 만들어 마지막 생을 뜻있게 회향할 수 있게 하신 선지식이다. 호걸(豪傑)스럽고 무애자재(無碍自在)한 스님은 설총종통(說通宗通) 설법과 선(禪)의 종지에 막힐이 없었어 언제나 일을 남에게 덮어 씌

만일염불회 30년 이끌어...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 만져라"

서 팔미(八味)·신기환(腎氣丸)을 먹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육바라밀탕 법문이 끝나자, 경봉 스님은 스스로 수행이력을 말씀하셨다.

"내가 밀양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잃고 1907년 16세에 양산 통도사 성해 스님께 출가하니 부처님 품안에 어머니 품속과 같았어. 1911년 명신학교를 졸업하고, 4월에 해담 스님께 구족계를 받으니까 청호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을 때 보다는 두 어깨에 쌍 날개가 달린 것 같았어. 그래서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전국 각 지방에 돌아다니며 포교를 할 때는 온통 내 세상과 같았지. 여러분도 이제 한의사 면허증을 받고 전국 보건소에 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게 되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야."

전 대중이 박당대소 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일념망심명료(一念忘心明了) / 미타부계별가향(彌陀不在別家鄉) / 통신자화연화국(通身自化蓮華國) / 처처무비극락당(處處無非極樂堂) 한 생각 놓아 마음까지 잊어버리면 / 아미타불이 별 세계에 있겠는가 / 5온의 이 몸 터져 꽃이 피면 / 곳곳이 그대로 극락이라네.

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오대산 월정사 한암 스님과 서을 대각사 용성 스님과 편지내왕을 해 (내가 깨달은 도리를) 확인해 보니 틀림없다 하고... 1932년부터는 통도사 강원에 강주가 돼 50년간 후학을 지도하였지. 1938년 통도사 주지도 하고, 1941년 선학원 원장도 하고, 1953년 극락호국선원에 조실로 추대돼, 이전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하하." 하자 또 한 번 박수가 터져나

우는 일이 없었다.

내가 불교에 들어와서 남의 일을 통째로 맡아 사형선고를 받은 분을 두 분 보았는데, 한분은 대은 김태을 스님이고, 다른 한분은 원광 경봉 스님이다. 김태을 스님은 한국전쟁 직전 절 안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형언도까지 받다가 죽지 않고 되살아나 한국불교 포교에 큰 바람을 일으킨 분이고, 경봉 스님은 절 안의 젊은 스님이 한 때의 잘못으로 애기를 가지자 "그 자식이 내 아이다" 해 대본산 주지직도 내 놓고 사람을 보호했던 것이다.

세수 91세 되던 1982년 어느 날, 경봉 스님이 입적하려 하자 호상좌 명정 스님이 "스님이 가신 뒤 스님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물음에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는 법어를 남기고 열반했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하던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 (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일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 (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 (한글/영어)